



TTA 저널 200호 기념사

200번째 저널을 내며..

지난 1989년 9월 창간한 TTA 저널이 이번에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TTA 저널은 창간 이후부터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트렌드를 공유하고 연구계와 산업계 소식과 최신 정보를 종사자에게 알리면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ICT 분야 발전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TTA 저널이 처음 발간되었던 시절로부터 30년이 훌쩍 넘어선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는 점점 가속화되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산업 지형이 크게 변했으며 국가 간 기술패권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소리도 없고 국경도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부상한 ESG의 중요성, 블록체인과 NFT를 통한 디지털자산 및 콘텐츠 혁명,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발달과 이에 따른 윤리문제처럼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ICT는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며 새로운 분야를 형성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ICT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해결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번 200호 특집에서는 그동안 ICT 분야 국내외 정책 및 기술발전 방향에 발맞춰 TTA 저널에서 다루었던 각종 ICT분야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ICT로 만드는 미래의 희망(H.O.P.E.)을 제시하기 위해 Healing, Opportunity, Platform, Environment 라는 화두로 의료와 블록체인, 자율주행과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ICT 기반의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TTA 저널은 ICT 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과 기술 및 시장 동향 정보를 널리 알리는 매체로서 앞으로도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TTA 저널이 지금까지 그러했듯, ICT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TTA 저널 200호가 있기까지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사, 표준화전문가를 비롯한 ICT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